

#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기승... 광주·전남 57명 수사

금품수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 광주, 찬조금·식사 제공 등 14명 전남, 43명 수사... 2명 검찰 송치 경찰 "신고접수·첩보 수집 강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운동첫날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57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3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1건, 14명을 수사 중이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금품

수수) 9건 △호별 방문(사전선거운동) 1건 △기부행위·호별 방문 1건 순이다.

광주의 한 농협 조합 임원이 조합장 입후보자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A씨 역시 공금 횡령과 정부 훈장 대가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또 다른 조합 소속 입후보자 B씨는 조합원들의 자택·비닐하우스를 일일이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다 입건됐다.

조합장 출마 예비후보였던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두 명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며

식사를 제공한 후보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은 나주의 한 농협 조합원이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 건네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건, 43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기부행위 2건, 2명은 검찰로 송치됐다.

전남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는 중복된 혐의를 포함해 △기부행위 28명 △허위 사실 유포 6명 △사전선거운동 3명 순이다. 기타 위반 사례도 6명이다.

전남의 모 조합장 D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조합원을 불러 현금 10여만 원을 건넸

다.

조합장 입후보자 측근 E씨는 지난달 선거운동 중간책에게 조합원 식사 대접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F씨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집을 찾아가 롤케이크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조합원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조합장 후보자, 금품을 받고 후보자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대표, 행사 후원금을 주고 받은 후보·주최측 관계자 등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돼 불

법행위 적발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 접수와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2.2대 1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18개 조합에 49명이 등록했다.

전남은 182개 조합, 381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조합 54곳(광주 2곳·전남 52곳)은 등록 후보가 1명 뿐이어서 투표 없이 조합장 당선이 결정된다.

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23일 목포해경이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낚시어선 특별단속

### 정원 초과·음주 등 위반행위

목포해양경찰은 신안 흑산면 가거도 갯바위 낚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기상 및 낚시어선 영업시간을 감안해 낚시객이 많은 토요일을 중심으로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

목포해경은 낚시어선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과승(정원보다 많이탑) △구명조끼 미착용·음주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 △출·입항 미신고 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또 해경은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

시어선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출항 전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낚시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갯바위 낚시 최성수를 맞아 선제적 안전관리로 해양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해경 관내인 영광·신안·해남·진도지역의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12만 7500여 명으로, 2020년 12만 3000명·2021년 12만 7000명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기람·목포=정기찬 기자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3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열린 202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차 정기회의에서 신규위원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 광주 상무지구대, 화재 현장서 노부부·어린이 구조

### 김규완 경감·나민혁·오신혁 순경 5분만에 현장 도착 후 대피 시켜

화재 속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어르신과 아이를 신속하게 구조한 광주 상무지구대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 상무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치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상무지구대 소속 김규완 경감과 나민혁·오신혁 순경은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호소하는 70대 노부부를 발견해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또한 곧바로 계단으로 대피중이던 3살

아이를 가스를 마시지 않게 품에 안아서 데리고 나왔다.

상무지구대는 이들 3명을 병원으로 인계시키며 후속 조치를 취했다.

소방 당국은 베란다에 버려진 담배꽂오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있으며, 구조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민혁 순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 김홍탁의 Branding Class

###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무계산서 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